

1980년대 중국 조선족의 반간첩 혁명서사와 국가적 정체성

李海英 · 任秋樂*

I. 반간첩 혁명서사의 의미	국민적 자격 확인
II. '항미원조' 전쟁의 후방 전쟁으로서의 반간첩 투쟁	IV. 미제의 침중 전쟁으로서의 '조선전쟁'의 성격과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 확인
III. 반간첩 투쟁의 역사성을 통한 새중국의	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족 문학사에서 극히 희소한 반간첩 소설인 류원무의 『숲속의 우등불』을 중심으로 류원무가 반간첩 혁명서사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며 이러한 반간첩 혁명서사가 조선족에게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조선족의 국가적 정체성의 강조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설은 우선 반간첩 투쟁의 성격을 '항미원조'전쟁의 후방 전쟁으로 규정하였으며 '항미원조' 전쟁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설은 또한 항전승리 이전의 역사에로 소급해올라감으로써 반간첩 투쟁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항미원조' 전쟁과 반간첩 투쟁 모두 해방 이전 구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이었던 계급대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과거의 계급적 분화와 대립이 해방의 시점에서 이들에게 '잔류'나 '도주'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새중국의 인민정권의 구성원 즉 새중국의 국민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새중국의 국민적 자격이 어떻게 획득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공식에 의해 일제에 협력했거나 부역했던 조선인들은 새중국의 인민정권을 반대하고 파괴하고 전

* 중국해양대학교 교수, 제1저자 ·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교신저자

복을 기도함으로써 새중국의 국민에서 축출되었고 반대로 일제에 원한을 품었던 조선인들은 일제가 패망하자 혁명에 참가하여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서 새중국의 인민정권을 보위하고 새중국의 건설을 위해 성심껏 일함으로써 새중국의 국민적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소설은 새중국의 국민적 자격은 민족을 초월하여 계급적 분화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소설은 ‘조선전쟁’의 성격을 미제의 침중 전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조선전쟁’을 미제의 침중 전쟁으로 규정했던 북한 작가 이태준이 철저한 조선의 민족주의자로서의 입장과 조국 조선의 주체성이란 입장에서 1951년말에 기행문 『위대한 새중국』을 집필했다면 중국 조선족의 작가 류원무는 조선족의 반간첩 투쟁 및 ‘조선전쟁’에서의 기여와 공훈 그리고 활약을 뚜렷하게 부각함으로써 조국으로 된 중국을 보위하고 조국 중국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조선족의 애국심과 국가적 정체성을 보여주 고자 했다. 이를 통해 조선족은 드디어 건국이후로부터 문혁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온 정치운동과 동란 속에서 줄곧 따라다니던 ‘조선특무’, ‘한국특무’의 혐의로 인한 역사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당연한 중국의 국민으로 그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 류원무, 『숲속의 우등불』, 반간첩 혁명서사, ‘항미원조’, ‘조선전쟁’, 조선
족문학

I. 반간첩 혁명서사의 의미

류원무¹⁾의 『숲속의 우등불』은 중국인민해방군과 동북 변경의 조선족 및 한족 민병, 군중들이 지혜와 힘을 합쳐 ‘조선전쟁’기간 중국의 동북변경인 백두산에 공중 투하된 ‘미제’와 장개석 및 ‘남조선’ 특무들을 격파하는 이야기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선족 문학사에서 극히 희소한 반간첩²⁾ 소설로서 이 소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소설이 당시의 실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52년 6월부터 11월까지 미제와 남조선, 대만의 국민당의 연합으로 파견된 무장특무들이 비행기로 중국 길림성 연변 안도현의 무송과 료야령 경내, 그리고 장백산 일대에

1) 류원무(1935~2008)는 1935년 1월 22일 함경남도 신흥군 동고촌면 인흥리의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6살 나던 해인 1941년 2월 부모를 따라 흑룡강성 녕안현 진가툼으로 이주하였다. 녕안현에서 소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1954년에 할빈외국어학원 러시아어학부에 입학하게 된다. 이후 그는 연변대학으로 전학하여 역사학부를 거쳐 조문학부로 학적을 정한다. 그러나 궁핍한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1956년 3월 그는 연변대학을 중퇴하고 연변대학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그해 6월 연변인민출판사 번역실로 전근하여 번역활동에 종사하면서 많은 중문 작품을 번역하였다. 류원무는 1957년 동요를 작사하는 것으로 그의 문학창작을 시작하였다. 이후 1981년에 발표한 첫 장편소설 《장백의 소년》이 제 1 차 전국소수민족문학창작상을 받으면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된다. 그 이후로 장편소설 《다시찾은 고향》, 《봄물》 그리고 단편소설집 《아, 꿀샘》 등 작품을 발표하며 조선족문단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친다. 1980년대는 류원무 문학생애에서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왕성한 창작활동과 명성과는 달리 류원무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았다. 1952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 혼자서 장사하여 번 돈으로 어렵게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결국 가정형편 때문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퇴를 하게 된다. 전문작가로 되어 이름을 날리던 1980년대에도 그의 가정형편은 좋지 못하였다. 실상가상으로 1989년, 아내가 사기를 당해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되면서 그는 잠시 창작의 필을 내려놓고 빚을 갚기 위해 십여 년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후 빚을 청산하고 다시 문학창작과 작품출간에 힘을 쏟던 그는 2008년 12월 7일 폐암으로 운명하게 된다. 박미령, 「류원무 농촌소설 연구」, 중국: 중국해양대 석사학위논문, 2021, 10~11면 참조.

2) 조선족 문학사에서 반간첩 소설은 극히 희소한 바 특히 장편소설로는 류원무의 이 작품이 거의 유일하다. 본고에서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 군인 및 인민들의 반간첩 투쟁을 주요 제재로 한 이 작품을 건국 초기, 1980년대, 한중수교 이후 등 중국 조선족 문학사의 특징시기, 집중적으로 출현한 중국 조선족의 혁명투쟁을 서사화한 ‘혁명서사’의 일환으로 보았다. 중국 조선족의 혁명서사는 ‘항일서사’, ‘해방전쟁 서사’, ‘제2차 국내혁명전쟁 서사’, ‘이민서사’, ‘항미원조 서사’ 등 중국 조선족이 중국 경내 및 ‘항미원조 전쟁’ 등에서 수행한 혁명투쟁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투하되어 정보 수집 활동 등을 시도하다가 중국인민해방군과 공안일군들에게 일망타진된 사건을 가리키는데 주덕해의 평전 《주덕해의 일생》에 상세히 기록되어있다. 평전에 의하면 동북에서 상습비적이었던 이들은 해방이 날 때 대만에 도망쳐갔다가 그 후 동북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하여 미국 측의 눈에 들어 일본에 가서 간첩훈련을 받은 뒤 다시 중국에 파견되어왔던 것이다. 이들은 ‘문대’와 ‘심대’로 나뉘어 료야령과 무송에 투하되었으며 10월에는 이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독찰하기 위해 李軍英이라는 특무가 따로 투하되었다. 이들의 임무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장백산지구의 기상정보를 탐지하여 미국 비행기가 도문강과 압록강 연안을 폭격하는데 기상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백산 지구에 유격구역을 개척해놓는 것인데 먼저 발을 단단히 붙인 다음 길림, 장춘, 심양에까지 그 세력을 확대시킴으로써 안으로부터 미국침략군과 야합하여 전 동북을 점령하고 나아가서는 북경에까지 쳐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후 중국인민해방군과 공안일군들은 육속 이 두 갈래의 특무들을 격파하였으며 특히 무전수를 사로잡은 뒤, 적의 계책을 역이용하여 무전수로 하여금 그들의 본부에 연락을 하여 당초의 약속대로 독찰을 끝내고 돌아가기로 한 리군영을 마중할 비행기를 파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 끝에 이 비행기를 격파하여 미군 비행사 두 명을 사살하고 도널과 픽터우라고 하는 미군 두 명을 생포하였다. 이 두 미군에 대해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텔레스는 성명을 발표하여 그들이 탔던 비행기는 상인들의 무역용 항공기인데 중국 영공에 잘못 들어갔으므로 중국 정부에 두 사람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1954년 11월 중국인민군사법정에서는 픽터우와 도널을 무기도형에 언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진감시킨 “도널, 픽터우사건”이다. 이외에도 또 장백산에 투하된 ‘남조선’에서 파견된 무장특무를 발견하고 소멸하기도 하였다.³⁾ 소설의 줄거리는 대체로 이 기록과 비슷하다.

다음은 새중국 건국 이후 크고 작은 정치운동의 와중에 조선족은 늘 ‘조선특무’, ‘외국간첩’, ‘남조선특무’ 등 간첩 혐의에 끊임없이 시달렸으며 이는 조선족들에게 무형의 쇠사슬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족이 중국 경내의 토착 민족이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이주해온 이주 민족이며 집중적으로 진행된 이주의 역사가 새중국 건

3) 安龍禎·張振挺, 『長白山肅特』(延邊文史資料第二十輯), 延邊州內部資料性出版物第2016040002號, 2016;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연변인민출판사, 1987, 204~212면 참조.

국 당시 50년도 채 안된 짧은 시간이었다는 점과 외부에 북한과 한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민족국가가 있다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의 문혁 중, 북한과 중국 두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악화는 중국 내 조선족에게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연변의 반우파투쟁과 문혁 등 정치적 동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회고록 내지 자서전들로는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7-『풍랑』⁴⁾ 중의 「걸출한 정치활동가 주덕해」,⁵⁾ 「연변의 《문화대혁명》」,⁶⁾ 「진리를 고수한 불굴의 투사」,⁷⁾ 「미리 꾸며낸 《반역폭동》」,⁸⁾ 「항일전사 한청의 비운」,⁹⁾ 「그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속에서 살아남았다」,¹⁰⁾ 「봄서리속에서」,¹¹⁾ 「기사 리동순의 불행」,¹²⁾ 「날벼락」,¹³⁾ 「역경속에서」,¹⁴⁾ 「폭풍속에서도 진달래는 붉다」,¹⁵⁾ 「동북의 태상황 모원신이 연변에서 저지른 죄행」,¹⁶⁾ 『주덕해의 일생』,¹⁷⁾ 『고향 떠나 50년』,¹⁸⁾ 『조남기전』¹⁹⁾ 등이 있는데, 이들 기록물들에는 “조선(북한)특무”, “조국 배반”, “매국역적”, “반혁명 폭란” 등이 유난히 많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기록은 문혁이 끝난 뒤 20년이 지난 1998년의 시점에서 창작된 리혜선의 장편소설 『빨간 그림자』에 다음과 같이 형상화되었다.

-
- 4) 오태호 외, 『풍랑』, 민족출판사, 1993.
 - 5) 김동화, 「걸출한 정치활동가 주덕해」, 『풍랑』, 민족출판사, 1993, 20면.
 - 6) 정관룡, 「연변의 《문화대혁명》」, 『풍랑』, 민족출판사, 1993, 307면.
 - 7) 김문일·정규렬, 「진리를 고수한 불굴의 투사」, 『풍랑』, 민족출판사, 1993, 311면.
 - 8) 김광희, 「미리 꾸며낸 《반역폭동》」, 『풍랑』, 민족출판사, 1993, 343~346면.
 - 9) 김무길, 「항일전사 한청의 비운」, 『풍랑』, 민족출판사, 1993, 347~353면.
 - 10) 소문, 「그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속에서 살아남았다」, 『풍랑』, 민족출판사, 1993, 354면.
 - 11) 문창남, 「봄서리속에서」, 『풍랑』, 민족출판사, 1993, 359~367면.
 - 12) 정확용, 「기사 리동순의 불행」, 『풍랑』, 민족출판사, 1993, 376면.
 - 13) 김철룡, 「날벼락」, 『풍랑』, 민족출판사, 1993, 379면.
 - 14) 김충일, 「역경속에서」, 『풍랑』, 민족출판사, 1993, 384면.
 - 15) 원시희, 「폭풍속에서도 진달래는 붉다」, 『풍랑』, 민족출판사, 1993, 394면.
 - 16) 로동문, 「동북의 태상황 모원신이 연변에서 저지른 죄행」, 『풍랑』, 민족출판사, 1993, 396~405면.
 - 17) 『주덕해의 일생』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연변인민출판사, 1987.
 - 18) 정관룡, 『고향 떠나 50년』, 민족출판사, 2006.
 - 19) 곡애국·중범상, 『조남기전』, 연변인민출판사, 2004.

《심양군구에 보내는 급전은 이렇게 합시다.》

비서가 급급히 받아적었다.

《지금 연길시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다. 그들은 하북을 불태우고 하남으로 돌진하고 있는데 량식창고를 충격하고 기름창고를 포위했다. 연길시를 피로 물들이고 도문관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실한데 좌파조직에 무기가 없어 여러번 실패했고 지휘할 능력마저 없다.》²⁰⁾

위의 인용문은 당시 전국을 뒤흔들었던 소위 연변 조선족의 ‘조국 배반’ 사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이다. “연길시를 피로 물들이고 도문관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상부에 보고되는 소위 연변 조선족의 ‘조국 배반’ 행위에 대한 보고는 문혁 당시 북중 갈등의 악화 속에서 조선족이 겪고 있는 심각한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밖에서 물통소리가 왈랑절랑 들려왔다. 열린 문으로 한족들이 목을 깃속거리며 욕을 했다.

《당신들 조선사람들이 전 연길시내 수돗물에 다 독약을 탕다는데 왜 그렇게 양심이 없는 짓을 하는거요?》

《당신들이 나라를 배반하고 고향으로 도망치려고 한다던데 정말이요?》

《당신네 정말 양심이 없소. 중국이 없으면 당신네 어디서 살겠소? 남조선은 자본주의나라지, 조선두 소문에 수정주의라던데, 당신네 어떻게 이 사회주의나라를 배반한단 말이요? 키워준 개 발뒤축 문다더니!》²¹⁾

문혁 당시, 연변에서 한족과 조선족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며 중국인들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조선족을 바라보고 있고 조선족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²⁾ 같은 시기, 북한 내

20) 리혜선, 『빨간 그림자』, 연변인민출판사, 1998, 202면.

21) 리혜선, 앞의 책, 204~205면.

22) 여기서서는 문혁 중, 연변의 조선족들이 북중 관계의 악화 속에서 겪는 심각한 민족적 수난과 연변지역에서 한족과 조선족 간의 민족 갈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연변 이외의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다만 연변은 조선족의 집거지로 그러한 갈등이 보다 집중적으로 체현된 것으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화교들 역시 북한 당국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다. 1963년 8월, 조선보통교육성 제17호령 결정에 따라서 중국인 소학교, 중국인 중학교의 교재를 모두 북한 교육성에서 발간한 교재로 동일화했으며, 수업도 조선어로 진행하였다. 1966년 모든 화교 학교의 교장을 북한 사람이 맡게 되었다. 배급을 축소하는 등 화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농민시장과 암시장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²³⁾ 1966년부터 1968년까지 길림성의 도문, 집안 및 장백지역을 경유하여 귀국한 화교는 모두 6,285명이다.²⁴⁾ 북한과 중국 관계의 악화 속에서 중국의 조선족과 북한의 화교들은 모두 심각한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반복되는 정치적 동란의 와중에 받게 된 불신과 의혹은 역으로 조선족의 간부와 군중들로 하여금 여타의 민족보다 훨씬 더 철저한 자아검증과 국민적 자격확인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그 일례로 조선족 간부로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장이라는 핵심 요직에까지 나아갔던 조남기는 중공중앙 군사위원회로부터 총후근부 부장 임명을 앞두고 난데없이 그의 정적들로부터 ‘한국특무’ 혐의가 있다는 익명의 고발을 당하게 된다. 이에 조남기는 중공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 양상곤을 찾아 자기의 “특무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며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특별 조사조의 엄격하고 심입된 조사를 통해 결국 당중앙과 조직으로부터 그의 결백을 인정받게 된다. 이 과정이 그에게 얼마나 큰 심적 압박감을 주었는지에 대해 조남기는 그의 회고록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가 ‘한국특무’로 익명의 고발을 당하게 된 것은 1979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국에 있는 그의 친동생으로부터 형인 그와 가족을 찾는 편지가 홍콩을 통해 왔기 때문인데, 당시 조남기는 편지를 받고도 즉시 뜯어보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자치주 공안국 국장과 안전부문의 책임자를 불러 그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함께 편지를 읽으며 편지를 조직에 바친다. 그의 친동생 조남원은 또 한국 KBS 방송국의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형과 가족을 찾는 방송을 하였는데 당시 “감정의 파도는 조남기의 사색을 격렬히 충격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그는 신분 때문에 동생과 통신 연계를 가질 수 없었으며 그래서

23) 문화대혁명시기 북한의 화교에 대한 차별은 다음 연구를 참조할 것. 이승엽, 「북한화교의 형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2; 표도르 켈리치츠키, 「북한화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14 참조할 것.

24) 박종철, 「문화대혁명 초기 북중관계와 연변 조선족」, 『민족연구』 63, 한국민족연구원, 2015, 113~114면.

그는 오로지 동생을 그리는 정을 마음속 깊숙이 묻어두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묵묵히 동생의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원했고 형제가 능히 여생에 다시 모일 수 있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해당부문에 지시를 내려 계속 한국방면의 방송을 감시하여 듣도록 함과 동시에 주위 상무위원회 및 길림성위에 이를 회보하였다.²⁵⁾ 이를 통해 이러한 ‘조선특무’, ‘남조선특무’, ‘한국특무’ 등 혐의가 조선족들에게 얼마나 큰 정치적 압력이 되고 있었는지 또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한 자기검증과 확인을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류원무의 이 소설²⁶⁾은 그러므로 1952년 ‘항민원조’ 전쟁 기간에 중국 동북변경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반간첩 투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조선족에게 오랫동안 정치적, 역사적 굴레가 되었으나 줄곧 스스로 이의 부당함을 말하지 못했던 ‘조선특무’, ‘남조선특무’ 관련 문제를 정면으로 서사화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류원무가 반간첩 혁명서사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며 이러한 반간첩 혁명서사가 조선족에게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조선족의 국가적 정체성의 강조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5) 곡애국·증범상, 「《특무혐의》 풍파」, 『조남기전』, 연변인민출판사, 2004, 484~504면.

26) 50여 년에 걸친 문학생애 동안 류원무는 장편소설, 중편소설, 단편소설, 실화, 수필, 칼럼, 평론 등을 여러 신문, 잡지에 350여 편 발표하고 20여 권의 작품집을 내놓은 다산작가이다. 하지만 그의 왕성한 문학창작과 풍부한 작품성과에 비하여 정작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지금까지 불과 두 편의 석사학위 논문과 몇 편의 학술논문만이 발표되었는데 이런 논문들도 다만 류원무의 《장백의 소년》, 《비단이불》, 《봄물》 등 대표작에만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본고의 연구 대상 작품인 반간첩 혁명서사 『숲속의 우등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는 작품 자체의 완성도나 문학적 성취가 류원무의 기타 작품에 비해 높지 않음과 동시에 이 작품이 1980년대 중국 조선족 문단의 주류 경향인 상처 소설, 반성 소설 및 개혁개방 주제의 소설과는 경향을 달리한 혁명서사의 일환으로 문혁의 종료와 함께 문학의 다원화를 지향하던 조선족 문단의 주류적 경향에서 벗어남으로 하여 조선족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 작품이 작품 자체의 완성도나 문학적 성취에 비해 특정시기, 중국 조선족의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반간첩 서사’라는 소재의 특수성 때문에 중요한 연구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II. ‘항미원조’전쟁의 후방 전쟁으로서의 반간첩 투쟁

소설은 중국의 동북변경인 장백산 밀림 로령에서 일어난 반간첩투쟁이 실은 단순한 간첩의 침투에 대항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당시 한창 진행 중이던 ‘판문점 정전담판’과 함께 교착상태에 있던 ‘조선전쟁’ 즉 ‘항미원조’ 전쟁의 후방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전쟁이며 ‘항미원조’ 전쟁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약 4개월 후인 1950년 10월 8일,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 인민지원군을 조직하는 것에 대한 명령」 제4항을 통하여, 북한의 후방지원 기지로서 중국 동북지역의 역할을 정식으로 규정하였다.²⁷⁾ 실제로 전쟁기간 중 중국 동북지역, 특히 연변은 북한의 후방지역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변지역의 조선족 중, ‘항미원조’전쟁에 지휘원 및 군인으로 참전한 인원은 4634명, 정치선전대, 운수대, 담가대, 번역원, 자동차 기사 등으로 참전한 인원은 5740명(이중 한족 5명), 전선 간호사로 참전한 조선족 여성은 898명으로 전체 인구의 비례를 놓고 볼 때, 조선족 인구 50명 중, 1명이 ‘항미원조’ 전쟁에 참여한 것이다.²⁸⁾ 이중, 종군공작대 1773명(모두 조선인), 종군 통역원 2163명(중국인 5명 포함), 간호원 898명(모두 조선족), 운수대 330명, 담가대 433명, 자동차 운전수 140명이었다.²⁹⁾ 연길시 전시 간호학교에서는 1950년 11월부터 1951년 9월말까지 강습반을 개설하고 1000여명의 연변 조선족 여성 간호원을 양성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의 각 야전병원에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였다.³⁰⁾ 도문 철도국에서는 500 여명의 철도 관련 종사자들이 북한에 들어가 수송전선에서 활약하였다.³¹⁾ 그러므로 ‘항미원조’ 전쟁은 조선족에게

27) “組成中國人民志願軍的命令”, 『毛澤東軍事文選』 6, 北京: 軍事科學出版社·中央文獻出版社, 109~110면(“중국인민지원군을 조직하는 것에 대한 명령(1950.10.8.)”,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한국전쟁 관련 중국자료선집: 한국전쟁과 중국』 2, 2002, 12면). 문미라, 「한국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연변(延邊)조선인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중 ‘혈맹’ 관계의 강화」, 『동북아역사논총』 57, 동북아역사재단, 2017, 266면 재인용.

28) 政協延邊朝鮮族自治州文史與學習宣傳委員會編, 『歷史的回眸』,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3, 204면.

29)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역사비평사, 2010, 293면.

30) 리해식, 「연길시전시간호학교」,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6: 창업』, 민족출판사, 1994, 210면.

31)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 앞의 책, 2~3면.

는 북한을 지원하는 원조(援朝)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전쟁의 주체가 다름없는 전민(全民)적 전쟁이었다. 전쟁 기간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 두고 인접된 지리적 관계로 전체 연변지역은 상병치료, 보급 등 후방기지로 되었으며 수시로 미군의 비행기가 폭격하는 준 전쟁지역이기도 했다. 또한 ‘항미원조’ 전쟁은 조선족에게는 그들의 ‘조국-조선’을 해방하는 전쟁으로 선전되고 실제로 그렇게 인식되기도 했다. 특히 ‘항미원조’ 전쟁 초기에는 여전히 ‘한반도=조국관’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다.³²⁾ 언론에서는 연길 초급중학교 학생들의 참전열기를 전하고 있었는데 열사가족인 이 학교의 어느 학생의 “나는 붓대를 총으로 바꾸어주고 곧 조국전장에 달려나가겠다”는 탄원을 소개하고 있다.³³⁾ 『동북조선인민보』에서는 “연길시 수많은 노동자, 농민, 학생들 함성, 조국에 돌아가 조선인민군에 참여해 원수 미국 침략자를 깨끗이 쳐부수겠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있다.³⁴⁾ 이상에서 볼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혹은 북한이 조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중국공산당 측 역시 그때까지는 표면적으로는 북한 조국론을 용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이처럼 중국의 조선족 특히 연변지역의 조선족에게 ‘항미원조’ 전쟁은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었다.³⁶⁾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회 역사적 사건이 정작 조선족 문학에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항일전쟁, 해방전쟁이 1950년대, 1960년대, 1980년대 혁명서사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에 반해 정작 건국 초기, 연변 조선족의 삶에 중대한

32) 염인호, 「6.25전쟁과 연변조선족 사회의 관련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28, 2004, 331면.

33) 『동북조선인민보』, 1950년 11월 9일자.

34) 『동북조선인민보』, 1950년 11월 5일자.

35) 염인호, 앞의 논문, 311면.

36) ‘항미원조’전쟁 즉 ‘조선전쟁’이 연변조선족 사회에 끼친 중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염인호, 「해방 직후 연변 조선인 사회의 변동과 6.25전쟁: 군중대회·운동분석을 통하여」, 『한국근현대사연구』 2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염인호, 「6.25전쟁과 연변조선족 사회의 관련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28,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역사비평사, 2010; 박정수, 『《동북조선인민보》를 통해서 본 연변조선족과 6.25전쟁」, 『한국사학보』 37, 고려사학회, 2009; 문미라, 「한국전쟁시기 중국인 민지원군·연변(延邊)조선인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중 ‘혈맹’ 관계의 강화」, 『동북아역사논총』 57, 동북아역사재단, 2017; 최일, 「민족에서 ‘국민’으로-‘조선족’과 ‘조선전쟁」, 백원담·임우경 편,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문학과학사, 2013.

영향을 끼쳤던 ‘항미원조’ 전쟁은 직접적으로 서사화 되지 않고 있다. 조선족 문학에서 ‘항미원조’ 전쟁은 대개 소설의 역사적 배경으로 후경화 되거나 혹은 전쟁이후 즉 ‘항미원조’ 전쟁이 조선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서사화한 ‘후일담’의 형식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항일전쟁, 해방전쟁은 중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건국을 위한 전쟁이었던 것에 비해 ‘항미원조’ 전쟁은 건국 이후, 이웃나라 북한을 도와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고 중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국 전쟁의 성격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며 조선족의 중국역사로의 편입 즉 국민적 자격의 획득은 항일전쟁, 해방전쟁을 통해 기본상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조선족의 혁명서사가 조선족의 국가적 정체성의 확립과 강조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 소설 역시 ‘항미원조’ 전쟁을 정면으로 서사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의 동북변경에서 벌어진 반간첩 투쟁을 통해 ‘항미원조’ 전쟁을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소설은 주인공 리용길의 약혼녀 박영애가 리용길이 조직의 명령에 의해 개인 여인숙을 경영하면서 첩보원으로 활동하는 내막을 모르고 리용길에게 탐오를 했으면 조직에 철저히 교대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무슨 항거이냐고 사직서를 내고 개인 여인숙을 경영하는 리용길을 비판하는 장면으로부터 ‘항미원조’를 이들의 삶에 연결시키고 있다. “남들은 항미원조전선에서 피흘리며 싸우는데 동무는 오히려 타락되었으니 한심해요, 한심해!”³⁷⁾ 라는 연인에 대한 박영애의 준절한 비판과 절규는 ‘항미원조’가 당시 이들의 삶의 한복판에 놓인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며 ‘항미원조’ 전쟁의 승리를 중심으로 후방에서의 이들의 일상이 배치되고 영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피치못할 신체적 문제로 농촌에 남아 민병으로 활약하는 조선족 총각들은 “참, 이놈 손가락을 작두에 상하지만 앓았던들 난 언녕 참군하였을겁니다. 조선에 나가서 양코배기놈들을 막 쓸어눅혔을텐데 예참, 분해서 ……”³⁸⁾라고 ‘항미원조’ 전선에 나가지 못한 것을 매우 한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정서는 변방부대 전사들 속에도 존재한다.

37) 류원무, 『숲속의 우등불』, 연변인민출판사, 1980, 13면.

38) 류원무, 앞의 책, 38면.

박인철이도 인제는 관찮게 행군하였다. 박인철이는 금년에 열아홉살나는 중학교졸업생이었다. 그는 학교시절에 학습성적이 우수하였고 몸도 날렵하여 축구선수질도 하였다. 지난 겨울 그는 향미원조 보가위국의 성스러운 동원이 내리자 학교를 기한전에 졸업하고 전선으로 탄원해나섰다. 입대할 때만 하여도 젊은 청춘의 용맹을 떨쳐 기적을 창조할 것 같았는데 입대한 다음에는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변방부대에 배속되어 매일과 같이 인적이 드문 밀림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³⁹⁾

변방부대 독립영 영장 오영의 경위원으로 있다가 정찰패에 합류한 박인철 역시 중학교를 기한 전에 졸업하고 ‘조선전선’에 지원했으나 입대 후, 압록강을 건너 ‘조선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변방부대에 배속되었다. 이는 당시 조선족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속에 ‘조선전선’에 탄원해 나서는 ‘항미원조’ 입대열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인철은 자기의 희망대로 가열처절한 ‘조선전선’에 나가지 못해 서운해하는데 이는 변방부대의 다른 전사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정서이다. 이에 오영은 전사들에게 후방에서의 특무 숙청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론 가렬한 제1선으로 달려나가려는 동무들의 심정은 이해할만하오. 그러나 여기 밀림속도 제1선이요. 놈들이 여기에 특무를 투하시킨데는 그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요. 비록 이번 투하가 몇놈에 지나지 않는다고 예견되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대한다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소. 우리가 장악한 정보에 의하면 놈들은 반동무장대오를 조직하여 후방을 소란함으로써 내외로 협공하려는 것 같소.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특무숙청임무의 중요성을 참답게 인식하고 적을 경시하는 사상도 고쳐야 하거니와 조급정서도 극복하여야 하겠소.》⁴⁰⁾

오영은 ‘항미원조’ 제1선에 나가지 못해 서운해하는 전사들에게 그들이 수비하고 순라하는 동북변경의 장백산 밀림도 비록 후방에 속하기는 하지만 ‘항미원조’ 전선에 못지 않은 제1선이라고 하면서 장백산 밀림에서의 특무 숙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9) 류원무, 앞의 책, 45~46면.

40) 류원무, 앞의 책, 75~76면.

그는 적들이 장백산 밀림에 무장특무를 투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후방을 교란하고 내외로 협공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후방에서 특무들의 교란을 철저히 막고 침투한 특무들을 일망타진해야만 ‘항미원조’ 전선에서의 순조로운 진격과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고 전사들을 설복 교육한다. 이처럼 소설은 ‘항미원조’ 전선과 조국의 동북변 경인 장백산 밀림이 비록 수만리 떨어져 있지만 실은 하나의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쟁의 동시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오영이 거느리는 독립영은 ‘항미원조’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두만강변 장백산 밀림으로 들어왔다.

오영이 거느리는 독립영이 여기 신성일대에 진주한지는 이미 1년 남짓이 되었다. 항미원조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은 두만강변 장백산 밀림 속으로 들어왔다 …….

그들이 그간 미-리, 미-장 공중 무장특무와 겨루어본 일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한때 근간에 동북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시가 또 왔다. 미제국 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자 그 실패를 만회하고 나아가 저들의 야망을 달성하려고 암암리에 대규모적인 팬프리트추기공세를 다그치고 있다. 놈들은 저들의 밀천을 몽땅 긁어가지고 금성지구에서 판가리하려는 한편 우리 나라 장백산지구에 대량의 무장특무를 투하시켜 내외로 협공할 시도를 보이고 있다 …….(41)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오영이 거느리는 독립영은 이미 장백산 밀림에서 1년 남짓이 미-리, 미-장 공중 무장특무를 격파하는 작전을 치루고 있었다. ‘항미원조전쟁’의 시작과 함께 미국과 ‘남조선’, 대만 측에서는 무장특무를 동북변경의 장백산 밀림에 파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항미원조’ 전쟁에서 동북변경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정전담판이 진행되는 등 ‘항미원조’ 전쟁이 교착상태에 접어들자 미제는 ‘조선전선’인 금성지구에서 판가리를 준비하는 한편 동북변경의 장백산 지구에 대량의 무장특무를 투하시켜 ‘조선전선’과 동시에 후방을 교란하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소설은 장백산 밀림에서 벌어지는 반간첩 투쟁이 실은 ‘항미원조’ 전쟁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41) 류원무, 앞의 책, 28면.

당에서는 나에게 수백리 림해의 변강을 보위할 중책을 맡기었다. 조국의 변경 연변은 조국의 동대문이며 천연자원이 부요한 장백산은 전략적 요새이다. 백두산천지에서 압록강, 두만강이 발원되어 형제의 나라 조선과 국계를 이루고 있다. 지금 조선에서는 미제 침략자들이 지른 전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전해 가을에는 침략의 마수를 압록강, 두만강 연안에까지 뻗치고 우리 나라 변경도시와 마을을 미친 듯이 폭격, 소사하기까지 하였다. 조국의 영웅적 아들딸들은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성스러운 기치를 높이 들고 씩씩하고 기세드 높이 압록강을 뛰어넘어 영웅적 조선인민군과 어깨를 견고 미제침략자들을 38 선이남으로 족쳐버렸다. 금년 7월에 놈들은 부득불 개성지구를 중립구로 하며 정전담판을 하자는 조선정부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의 제의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놈들은 저들의 실패를 만회하며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계속 동부, 중부, 서부 전선에서 미친 듯한 무장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심지어 놈들은 국제법까지 위반하고 가장 야만적인 세군무기까지 사용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무시로 우리 나라 령공, 령해를 침범하며 소란하고 있다. 대만에 쫓겨간 장개석비도들은 때를 만났다고 상전의 사촉하여 무시로 대륙에 무장특무를 잠복시켜 전복활동을 감행하고 있다.⁴²⁾

장백산 밀림의 특무 숙청을 책임진 독립영 영장 오영은 당이 자기에게 맡긴 중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고 있으며 연변이 조국의 동대문이며 장백산이 전략적 요새임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중국의 변경도시에 대한 미군의 야만적인 폭격과 소사와 같은 무력도발이야말로 중국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넘어 ‘조선전쟁’에 뛰어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즉 ‘조선전쟁’에 대한 중국의 파병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제는 ‘조선전장’에서의 무장공격과 함께 중국의 영공, 영해를 침범하고 동시에 대만의 장개석 비도들을 사촉하여 ‘조선’과 국경선을 사이 둔 장백산 지구에 무장특무를 투하하여 파괴와 교란을 일삼았음을 폭로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영은 조국의 변방을 지키고 특무들의 소란을 미연에 방지하며 조국의 후방을 안정시키는 것이 자기의 최우선 임무임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장백산 밀림의 특무 숙청을 책임진 오영의 이러한 자각을 통해 장백산 밀림 및 연변 지역에서 벌어지는 무장특무들의 교란과 파괴는 곧 미군의 ‘조선’ 침략 전쟁의 연속이자 하나의 작전임

42) 류원무, 앞의 책, 29면.

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무장특무들을 소멸하기 위한 그들의 반간첩 투쟁은 곧 ‘항미원조’ 전쟁의 후방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쟁으로써 ‘항미원조’ 전쟁의 연속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간첩투쟁과 ‘항미원조’ 전쟁과의 동시성은 잠복특무들의 활동궤적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글쎄말이야,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이쪽에서 불이 번쩍나게 낙동강까지 밀고나가더니 뒤미처 또 저쪽에서 압록강까지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1년 남짓이 지난 지금은 또 38선에서 딱 버티고 있거던.”⁴³⁾

“..... 이제 미군이 밀물처럼 예까지 쳐들어올 땐 장위원장이 또 남쪽에서 쳐들어올테니 그때면 내나 자네는 가친의 원수를 갚게 된다는말이야”⁴⁴⁾

잠복특무 백석필은 중국 공산당 측 지하일군 리용길을 중국 공산당과 새중국에 원한을 품고 타락한 인물로 오판하고 자기들의 특무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리용길에게 접근하여 그를 조직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그는 리용길에게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올바르게 인식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때 그가 제시하고 분석하는 현실이란 바로 ‘조선전쟁’의 진행상황이다. 그는 미군과 ‘남조선’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들어왔다가 현재 ‘3.8’선에서 1년 남짓이 교착상태를 유지하고 버티고 있으며 미군이 곧 ‘3.8’선을 넘고 압록강을 넘어 중국까지 쳐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동시에 장개석이 남쪽에서 쳐들어올 것이므로 중국 공산당 영도 하의 새중국이 곧 망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가 하면 잠복 특무들의 행동 일체는 모두 ‘조선전쟁’을 중심으로 개시되고 있다.

최호는 룡문진 교외에서 약방을 차리고 있었다. 그는 이 룡문진에 잠복해있는 자가 벌써 몇해 째 되었는데 그의 사명은 약방을 차리고 장기적으로 잠복해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그제야 조직을 확충하

43) 류원무, 앞의 책, 66면.

44) 류원무, 앞의 책, 70면.

며 손님이 가거든 활동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⁴⁵⁾

잠복특무 최호는 항일전쟁 승리 이후부터 그의 상전의 명령을 받고 룡문진에 장기간 잠복해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근 5년간이나 상전의 이렇다 할 지시가 없이 잠복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조직을 확대하고 ‘손님’이 가거든 활동을 시작하라는 상전의 지시를 받게 된다. 최호는 상전의 지시에 따라 밀수쟁이, 되거리장사군 등으로 조직을 확대했으며 지난해 가을에 미군이 압록강 연안까지 쳐들어오자 태극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지하에서 나와 행동하려고 서둘렀다. 그러나 상전은 그에게 계속 잠자코 있으라고 분부했는데 정전담판이 시작되자 상전은 백석필이라는 특무를 파견하여 최호에게 조직을 확충하고 ‘손님’이 가면 거처할 장소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처럼 항일전쟁 승리 이후부터 새중국 건국까지 줄곧 잠복해있던 특무들이 ‘조선전쟁’을 시작으로 지하에서 나와 활동하기 시작하고 또한 ‘조선전쟁’의 전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통해 ‘조선전쟁’이 이들 잠복특무들에게도 역시 매우 중요한 시간적, 행동적 좌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특무활동이 ‘조선전쟁’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101호, 천일부대 제2지대 상좌 사령 마희걸이요. 당국에 충성하는 신주의 호한들이 오늘 장백산 밀림속에 모였소.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초면부지였으나 우리 중화민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닌 인연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소. 우리는 장백산밀림속에 천하에 돌도없는 별동대, 천일부대를 세우게 되요. 팬프리트장군께서 새로운 전략적 포치를 하셨으니 민국의 수복을 위해 그리고 대한전쟁의 승전을 위해, 우리 천일부대의 성공을 위해 오늘 첫 새벽에 경축연회를 베풀어 한잔 할 것을 제의하오.”⁴⁶⁾

“…… 지금 개성에서 정전담판을 하는 것은 팬프리트장군의 추기공세를 위한 것이구 우리가 여기로 온 것은 천일부대를 일으켜 내외로 협공하자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 행동할 때도 되었소.”⁴⁷⁾

45) 류원무, 앞의 책, 83면.

46) 류원무, 앞의 책, 101면.

47) 류원무, 앞의 책, 123면.

잠복특무들이 후방에서 오랜 잠복을 끝내고 반혁명 파괴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훈련된 무장특무가 동북변경인 장백산 밀림에 공중투하 되는데 이들의 목표 역시 잠복특무와 협력하여 후방을 교란하고 ‘조선전쟁’의 배후에서 협공을 함으로써 진행 중인 ‘정전담판’에 영향을 주고 소위 미제가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추기 공세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변경은 결코 후방이 아니라 실은 파괴와 교란 및 그것에 대항하여 후방을 지키고 보위하는 반간첩 투쟁이라는 또 하나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백산 밀림에 투하된 이들 무장특무들이 일부는 한국 이승만 정권의 파견을 받았고 일부는 대만으로 도망간 국민당 반동정권의 파견을 받았으며 이들이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미군 첩보인원들의 통일지휘를 받고 있음을 통해 ‘조선전쟁’이 결코 단순한 북한과 미국 간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 북한, 소련을 한 축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 한국의 이승만 정권, 대만의 장개석 정권, 일본을 한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 간의 첨예한 세력 대결이며 세계적 범위의 정의와 비정의의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이들 양 진영이 ‘조선전쟁’의 연장으로서의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간첩’, ‘반간첩’ 투쟁에서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반간첩 투쟁의 역사성을 통한 새중국의 국민적 자격 확인

소설은 반간첩 투쟁이 ‘항미원조’ 전쟁의 연속이며 ‘항미원조’ 전쟁과의 동시성 등 현재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항전승리 이전의 역사에 소급해 올라감으로써 반간첩 투쟁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소설은 반간첩 투쟁 양 진영 인물들의 출신과 성분, 과거의 행적을 통해 이들의 현재가 실은 해방이전, 즉 항전승리 이전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항미원조’ 전쟁과 반간첩 투쟁 모두 해방 이전 구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이었던 계급대립 즉 친일지주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착취와 압박 하에 놓여 있던 농민계급의 대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소설에서 간첩 진영을 구성하는 한 축인 잠복특무들을 보기로 하자.

해방 초기 북한에 나갔다가 ‘항미원조’ 전쟁에 즈음하여 고향인 룡문진으로 돌아온 조선인 잠복특무 백석필은 해방 전 일제의 사복 특무였던 아버가 중국공산당에 의해

처단됨으로 하여 중국공산당에 대해 뼈속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자이다.

워낙 백석필의 아버지는 30년대말에 우리 공산당에 의해 처단을 받은 자였다. 일본놈들의 사복특무인 그는 우리 유격구에 잠입하여 당내에까지 혼입하였다. 높은 당내에서 신임을 얻게 되자 이른바 민생단사건을 조작해내었다. 리간, 도발, 분쟁, 나중에는 비참한 살육까지 빚어졌다. 마침내 조직에서는 백가의 정체를 간파하고 처단해버리었다. 그리하여 백석필은 공산당을 뼈에 사무치게 증오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연고로 하여 광복전에 그는 리용길이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때 리용길은 가친의 일이 미미하였지만 백석필은 일제놈들의 기만적인 유설을 전적으로 믿고 그의 부친도 공산당에 의해 재앙을 입었다고 여겼던 것이다.⁴⁸⁾

백석필의 아버지는 일제의 사복특무로 1930년대 항일유격구에 잠입하였고 당내에까지 혼입하였으며 그 악명 높은 ‘민생단 사건’을 조작하여 항일대오 내의 이간, 도발, 분쟁, 나중에는 동지들끼리의 비참한 살육까지 빚어내었다. 결국 정체가 들통 나 1930년대 말, 중국 공산당에 의해 처단 당하게 된다. 이처럼 소설은 1930년대 중국 동북지역의 항일유격구 내에서 벌어졌던 ‘민생단 사건’에까지 소급해감으로써 해방 이후, 백석필이 북한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잠복특무로 동북변경지역 도시인 룡문진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수행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실은 1930년대 일제의 사복특무로 항일유격구에 대한 간첩활동과 파괴활동을 앞세웠던 그의 아버지와와 혈연적 친연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잠복특무들이 조직원을 확충하는 기본적인 기준 내지 근거 역시 그 출신과 계급적 성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백석필이 해방전 리용길과 가깝게 지냈던 것도 리용길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처럼 중국공산당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이들이 확충하는 조직원이란 밀수쟁이거나 되거리장사 등 사회주의 새중국이 새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국민의 형상과는 배치되는 사회악들이다.

한족의 잠복특무 리문연은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의 한 과장이었는데 해방전쟁 중, 심양이 함락되기 전에 시골마을 차로하 류동에 잠복하였다. 이처럼 조선인 잠복특무들 뿐만 아니라 한족의 잠복특무들 역시 오늘날 중국공산당 영도 하의 새중국의

48) 류원무, 앞의 책, 64~65면.

인민정권과는 양립할 수 없는 출신과 계급성분 및 과거의 행적을 갖고 있다.

잠복특무들 뿐만 아니라 공중 투하된 파견특무들 역시 위만시기 일본헌병대의 사복특무였거나 왜놈의 특설부대원 출신으로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새중국의 인민정권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자들이다. 무전수로 파견된 왕병록은 원래 위만주국 시기 명안구의 피륙상 출신이었는데 후에는 피륙의 밀매를 감시하라는 헌병대의 비밀지시를 수행하였으며 그들에게 충성하여 나중에는 헌병대 경찰서 사법계 부주임 자리에 까지 올랐다. 그는 위만시절 그의 꼬나폴로 그에게 충성을 다하던 9촌숙 왕부해를 찾아 마을에 잠입하여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런가하면 부사령으로 공중 투하된 조비운 일명 리훈국은 천일부대의 유일한 조신인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해방전 이름난 대악패지주였으며 그 자신 역시 위만시기 일제의 특설부대의 대위 중대장이었다. 일제가 패망하자 조비운은 동북의 토비 마희산과 결탁하여 살인, 방화, 노략질을 일삼았으며 민주련군에 쫓기다가 길림으로 가서 국민당 군대에 가입하였다가 다시 대만으로 도망하였으며 거기서 간첩훈련을 받고 장백산 밀림에 부사령으로 파견된 것이다. 이처럼 파견 특무들 모두는 악패 지주계급 혹은 밀무역상 등 출신으로 위만시기 일제의 헌병대 경찰이거나 특설부대에 근무한 친일부역의 전력을 갖고 있으며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또 국민당반동파와 결탁함으로써 중국공산당 영도 하의 새로운 민주정권 하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으므로 대륙에서 도망간 자들이다.

이들의 반대 진영에 새중국의 인민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리용길을 비롯한 우리 측의 반간첩 투사들이 있다. 잠복특무 백석필이 조직원으로 확충하려고 했고 그들의 여러 가지 고함을 겪고 난 뒤, 그들의 조직원으로 선발되어 장백산 밀림 속에 투하된 특무들 속에 잠입한 리용길은 룡문에서 자그마한 석판인쇄소를 경영하던 리희균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 리희균은 노동자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도 직접 일하면서 이악스레 돈을 벌어 넉넉하지 못한 대로 생활이나마 꾸려갈 수 있었지만 어느날 난데없는 뼈라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다. 그가 경영하는 석판인쇄소 부근에 반일뼈라가 붙었는데 일제 경찰은 그 뼈라가 석판인쇄 된 뼈라였으므로 리희균을 의심하여 불문곡직하고 잡아다가 곤갖 흑형을 가했던 것이다. 리희균은 일제 경찰서에서 흑형을 당해 거의 죽게 되어 놓여나왔는데 한달도 못되어 원한을 품고 세상을 뜨게 되었다. 일제는 리용길과 그의 어머니가 자기들에게 원한을 품을가봐 반일 뼈라를 리희균의 인쇄소 부근에 붙인 공산당의 작간에 의해 리희균이 억울하게 취조를 당해 죽게 되었다고 그들 모자에게 말했으며 이 소문을

온 시내에 퍼뜨리었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은 리희균이 공산당의 작간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오해하게 되었으며 그런 원인으로 백석필 역시 리용길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공산당과 인민정권에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버린 것이다. 이는 백석필이 리원길을 특무조직에 끌어 들이려고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 애비가 공산당의 작간에 죽은 것도 있지만 사람이 완전히 타락되었던 말이야”⁴⁹⁾

광복이 되자 백석필은 남조선으로 내뺐다. 그는 남조선 리승만괴로도당의 특무기관에서 전문훈련을 받고 이번에 룡문으로 잠입해들어왔다. 그는 룡문에서 리용길을 만나게 되자 처음에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근심되어 아예 없애치우려고 속궁리를 하다가 공산당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가 타락된 것을 보자 손아귀에 넣으려고 고쳐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최호가 이처럼 시급히 결단을 내라는데는 어쩐지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⁵⁰⁾

백석필과 최호가 리용길을 특무조직에 끌어들이려고 결단을 내린 주요한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리용길의 아버지가 공산당의 작간에 의해 죽었다고 여긴 것과 다른 하나는 리용길 본인이 공금을 탐오하고 타락함으로써 새중국의 참신한 국민이 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해방이 나자 그들 모자는 비로서 리희균이 억울하게 죽은 것은 전적으로 일제놈들의 만행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리용길은 바로 이러한 계급적 원한을 품고 광복이 난 이듬해에 혁명에 참가하였다. 그는 자기의 모든 심혈을 다하여 밤낮을 무릅쓰고 사업하였다. 그러던중 조직에서는 그의 특수한 사회관계를 참작하여 그에게 공안국의 내선임무를 맡기고 공개적인 사업터로는 공상업사무소로 다니게 하였던 것이다.⁵¹⁾

49) 류원무, 앞의 책, 63면.

50) 류원무, 앞의 책, 65면.

51) 류원무, 앞의 책, 130면.

미제국주의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발동한 이래 걱정이 복잡하여지면서부터 그의 사업은 더욱 번중해졌다. 그는 낮이면 공상업사무소의 일을 보아야 하였고 여유시간이면 적정을 탐지하여야 하였다. 그러던차 룡문진에서 없어졌던 백석필이 다시 나타났다. 공안국에서는 장백산 지구에서의 특무활동과 백석필의 출현에 그 어떤 연관성이 있으리라는 판정이 가자 그의 동창생인 용길이를 《탐오분자》라는 루명을 씌우고《건달뱅이》로 가장 시켰던 것이다.⁵²⁾

그러나 리용길과 그의 어머니는 해방 후, 아버지 리희균이 실은 일제놈들의 만행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을 알게 되었고 리용길은 계급적 원한을 품은 채 혁명에 참가하였다. 리용길의 아버지 리희균의 죽음이 공산당의 작간이라는 소문으로 인해 백석필 등 반동분자들이 리용길에게 관심을 갖게 되자 조직에서는 이 특수한 사회관계를 이용하여 놈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리용길에게 공안국의 내선 임무를 맡겼으며 그의 공적인 신분은 공상업사무소의 직원이었다. 또한 백석필이 갑자기 룡문진에 나타난 것과 장백산 지구의 특무활동이 모종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여 백석필이 리용길에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리용길에게 ‘탐오분자’의 루명을 씌우고 ‘건달뱅이’로 가장하게 했던 것이다. 이처럼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리용길은 해방 후, 혁명에 참가하여 새중국의 인민정권을 보위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반간첩 투쟁의 일선에서 적극 투쟁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약혼녀 박영애의 몰이해와 멸시에도 아랑곳 않고 꾀꾀하게 자기의 맡은 바 ‘건달뱅이’ 역할을 뛰어나게 수행하여 백석필, 최호, 조비운 등 특무들의 거둬드는 고향을 이겨내며 그들의 신임을 얻어 드디어 ‘천일부대 독찰관’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장백산 밀림에 잠입한 특무 두령 장천의 부관 신분으로 그를 수행하여 장백산 밀림에 가게 된다. 거기서 역시 특무들로 가장한 우리의 독립영정찰패 전사들과 함께 장천을 속여 성공적으로 장백산 밀림에 공중 투하된 무장특무들을 일망타진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특무기관의 두령 미국인 탕나이를 사로잡게 된다.

이처럼 소설은 반간첩 투쟁의 양대 진영 구성원들의 과거를 재 호출함으로써 이들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현재가 과거의 계급적 분화와 대립에

52) 류원무, 앞의 책, 131면.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과거의 계급적 분화와 대립이 해방의 시점에서 이들에게 ‘잔류’나 ‘도주’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는데 과거 악패지주계층, 착취계급, 일제헌병대 및 일제 경찰에 부여했던 계층은 해방의 시점에서 ‘남조선’으로 도망가거나 국민당을 따라 대만으로 도주하였으며 착취 받고 압박 받던 노동자, 농민계층의 성원들은 고향에 남아 새중국의 건국에 참여하고 인민정권의 건설에 기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새중국의 인민정권의 구성원 즉 새중국의 국민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새중국의 국민적 자격이 어떻게 획득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공식에 의해 최호, 조비운, 백석필 등과 같은 일제에 협력했거나 부여했던 조선인들은 새중국의 인민정권을 반대하고 파괴하고 전복을 기도함으로써 새중국의 국민에서 축출되었고 리용길과 같이 일제에 원한을 품었던 조선인들은 일제가 패망하자 혁명에 참가하여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서 새중국의 인민정권을 보위하고 새중국의 건설을 위해 성심껏 일함으로써 새중국의 국민적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소설은 새중국의 국민적 자격은 민족을 초월하여 계급적 분화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IV. 미제의 침중 전쟁으로서의 조선전쟁의 성격과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 확인

소설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개입함과 동시에 남조선 측과 대만의 장개석 측과 공모하여 중국의 동북변경 장백산 밀림에 무장 특무를 투하하는 간첩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반간첩 투쟁은 ‘항미원조’ 전쟁 즉 ‘조선전쟁’의 연장이며 일선 전선과 동시성을 띤 후방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소설은 미국이 중국의 동북변경에 무장특무를 투하하고 첩보활동을 벌이는 것이 단순히 ‘조선전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다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적으로는 중국 침략이 그 목표이며 중국을 그 직접적인 공격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메리카합중국은 중국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방향을 잃은 우리 아메리카의 비행기를 추락시켰습니다. 우리 아메리카에서도

유엔에서도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전범자의 입에서 나온 터무니없는 생떼질에 모여섰던 전사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탕나이는 등골에서 식은땀이 짝 흐름을 느꼈다. 입술이 타들어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그래서 부지중 손수건을 꺼내어 입술을 만지고 이마를 짚었다. 오영이 입가에 랭랭한 웃음을 머금고 한마디 쓰아붙였다.

“탕나이선생, 미제국주의자들은 일찍 백여년전부터 우리 중국을 침략하였소. 항일전쟁이 승리한 뒤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은 매국역적 장개석을 사촉하여 동족상잔의 피비린 내전을 일으켰소. 특히 미제의 비행기와 땅크, 대포로 하여 우리 중화민족은 수천수만의 희생을 내었소. 미제국주의자들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치오 …….”⁵³⁾

자기가 훈련시켜 파견한 무장특무들의 첩보에 도취되어 그들의 ‘승리’를 경축하기 위해 직접 직승 비행기로 장백산 밀림에 내린 미제 특무기관 두목 탕나이는 중국 측 정찰패 전사들에게 생포되자 미국은 중국을 침략하지 않았으며 자기들의 비행기는 방향을 잃고 중국 영공에 잘못 들어왔을 뿐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독립영영장 오영은 미국의 중국 침략은 백 여년 전 아편전쟁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항전이 승리한 후, 벌어진 국공내전 역시 미제국주의가 그 배후에서 장개석 반동파를 사촉하여 일으킨 동족상잔의 내전이었음을 성토했다. 특히 미제가 장개석 반동군대에 제공한 비행기, 땅크, 대포로 하여 국공내전 즉 해방전쟁에서 수천수만의 중화민족이 희생되었음을 성토했으며 미제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친다고 규탄하였다. 이에 탕나이는 그것은 지나간 역사에 불과하다고 변명한다.

《아니 아니, 그건 력사요 력사, 지금은 ……》

탕나이는 황황히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려 들었다. 이번에는 손교도원이 저으기 격한 어조로 말을 받았다.

《지금도 중국을 침범하며 해치고 있소. 미제국주의자들은 중국을 삼키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유사 이래 가장 참혹한 조선전쟁을 발동하였소. 당신들은 침략의 마수를 언녕 우리 중국에 뻗치여 우리 나라의 변경지대를 폭격, 소사하고 있소. 뭐, 유엔이 가만있지 않을거라구? 14개의 노복국이 유엔의 기발을 들

53) 류원무, 앞의 책, 296면.

고 우리와 싸운지도 이미 1년이 되었소. 이 자리에 서있는 당신 자신이 중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철증이요. 도요다정보국 부사령 탕나이선생!》
《아니 아니, 무함을 마시오. 이는 비행기 항행사고가 틀림없습네다 ……》
그러자 광탄장을 위시한 술한 전사들이 또 한바탕 폭소를 터뜨렸다.
《탕나이선생, 우리 중국은 아편전쟁시기의 중국이 아니요. 한두마디 말로 우리를 우롱하던 시기는 영영 지나갔소. 우리 중화민족은 이미 일떠났소!》⁵⁴⁾

백여년전의 아편전쟁시기 미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을 지나간 과거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는 탕나이에게 독립영의 손교도원은 미국의 중국 침략은 절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미제가 조선전쟁을 발동한 이면에는 중국을 삼키려는 야망이 있으며 이미 미제는 중국의 변경지대를 폭격, 소사함으로써 중국에 침략의 마수를 뻗었다는 것이다. 특히 탕나이 자신이 장백산 밀림에 침투한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의 철같은 증거라는 것이다. 계속하여 자신은 항공기 사고에 의해 중국 영공에 잘못 들어왔을 뿐이라는 탕나이의 변명에 대해 광탄장은 중국은 더는 아편전쟁시기의 열강의 침략에 허덕이던 약소국이 아니라 당당한 주권국가이며 중화민족 역시 더는 열강에 짓밟히던 약소민족이 아니라 자기의 조국과 영토를 보위하기 위해 일떠선 자주적인 민족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소설은 조선전쟁에서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조선이 아니라 중국이며 그러므로 미제의 조선 침략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하는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은 결국은 미제의 중국 침략에 대항한 미중 간의 전쟁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중국의 ‘항미원조’ 전쟁 즉 ‘조선전쟁’ 참전이 미군이 38선을 넘어 중국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1960년대부터 알렌화이팅(Allen S. Whiting)을 비롯한 다수의 미국학자들은 “중국의 참전은, 압박한 안보위협에 단순하게 대응한 것일 뿐”이며, 만일 “미군의 38선 돌파가 없었다면 중국의 참전은 없었으며, 1950년 가을에 한국전쟁이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정부의 의견을 대표하는 중국군사과학원의 『抗美援朝戰爭史』 또한, “미국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38선을 넘어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이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부득이하게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⁵⁵⁾ 이에 대해 이종석은 “비록 인방(隣邦)

54) 류원무, 앞의 책, 296~297면.

55) 김동길·박다정,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및 한국전쟁 초기, 중국의 한국전쟁과 참전에 대한

이지만 남의 나라 전쟁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개입을 단행할 때는 보다 절실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⁵⁶⁾었다고 보았다. 그것은 바로 국공내전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은 대만 문제이며 중국과 미국과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한판 대결이다. 여기에 대해 정치학계에서는 국공내전 시, 미국의 개입을 우려한 스탈린이 양자강 도강을 만류했으나 중공지도부는 강을 건넜고 그때부터 미중 간의 한판 대결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어 미국이 한국전쟁에 발 빠르게 참전하고 제7함대의 대만해협 파견을 결정하자, 마오쩌둥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⁵⁷⁾ 다만 내전 승리 후, 어디에서 대결할 것인가만 남아있었으며 중국 지도부는 베트남·대만해협·조선 등 세 군데를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형 상 가장 유리하고 물자 지원이 용이하며 교통, 인력지원, 정치동원에 편리하고 소련의 간접 지원이 가능한 지를 고려할 때 조선이 최적의 장소였다. 따라서 미국의 ‘조선전쟁’ 개입으로 중국 역시 출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⁵⁸⁾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전쟁 즉 ‘항미원조’는 “중국혁명의 귀결”⁵⁹⁾이었다. 중국 지도부 역시 중국인민지원군 파병 시, “항미원조보가위국(抗美援朝保家衛國)” 즉 “미국에 반대하고 조선을 지원하며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구호를 내세웠으며 중국 전역에서의 ‘항미원조운동’은 평화옹호 서명운동 과 ‘미국의 대만과 조선에 대한 침략 반대 운동’으로 시작되었다.⁶⁰⁾ 그런데 중국 전역에서 전개된 평화옹호 서명운동의 전국 참가율이 28.5%인 것에 비하여(1950년 9월 하순 기준), 중국 동북지역 특히 연변은 60%의 참가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⁶¹⁾를 기록하였으며 참전을 역시 거의 ‘열광적인’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위의 제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연변 조선족의 ‘내 나라 전쟁’ 또는 ‘조국 조선’을 해방하지는 ‘한반도 조국관’에 기인한 것이었다. 여기서 ‘내 나라’, ‘조국’은 북한 내지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태도 변화와 배경」, 『역사학보』 225, 역사학회, 2015, 232면.

56)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1, 160면.

57) 姚旭, 『從鴨綠江到板門店: 偉大的抗美援朝戰爭』, 北京: 人民出版社, 1985, 23~25면.

58) 이종석, 앞의 책, 160~161면 참조.

59) 와다 하루키, 『朝鮮戰爭』, 東京: 岩波書店, 1995, 38면. 이종석, 앞의 책, 160면 재인용.

60) 문미라, 앞의 논문, 257면.

61) “전국화평서명운동의 빛나는 성취: 서명자 1억 3천여만에 도달, 세계 각국 서명 인수 중 제1위 차지”, 『동북조선인민보』, 1950.10.3.

중국 정부 측 역시 연변 조선족의 이러한 ‘한반도 조국관’⁶²⁾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조선전쟁’ 참여를 적극 동원하고 호소하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50년 9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들이 자기의 조국(강조는 필자)으로 되돌아가서 조국을 보위하고 조국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신성한 책무”라고 발언하였다.⁶³⁾ 문맥상 여기에서 말하는 ‘조국’은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시기 연변에서 발행한 신문 등에서도 조선족들의 ‘조국’이 북한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었는데 위에서도 살펴본 바 있는 연변 조선족들이 “조국전쟁”으로 출발했다는 기사가 대표적이다.⁶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에 따라 ‘이웃 나라’ 북한을 돕자는 것이 중국 전역의 일반적인 정서였다면, 연변에서는 한국전쟁을 ‘우리(나라)’의 전쟁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⁶⁵⁾

그런데 중국 조선족의 작가 류원무가 1980년대라는 시점에 ‘조선전쟁’ 기간인 1952년 중국의 동북변경인 장백산 밀림에서 벌어진 반간첩 투쟁을 서사화하면서 반간첩 투쟁을 ‘조선전쟁’의 연장이자 후방에서 벌어진 동시성을 띤 전쟁으로 바라본 이 소설에서는 이러한 연변 조선족의 ‘한반도 조국관’에 기초한 ‘조선전쟁’ 및 ‘항미원조’전쟁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 즉 ‘조국 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우리(나라)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류원무는 전쟁 당시 중국 전역의 일반적이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한 ‘미중 간의 직접적인 대결’로 ‘조선전쟁’의 성격을 규정 지음과 동시에 연변에서의 반간첩 투쟁을 미제국주의 무장 특무와 간첩에 대한 중국인민의 대응과 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설의 그 어디에서도 북한과 연변 지역의 ‘혈연’적 관계 내지 연변조선족의 특수한 감정적, 정서적 차원의 지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항미원조’의 지원 수혜국인 북한의 작가들이 중국의 ‘항미원

62) ‘한반도 조국’은 염인호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한반도 조국관’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염인호, 앞의 2010 책 참조.

63) 「外交部發言人關於居留中國的朝鮮人民有權利回去保衛祖國的聲名(1950.9.20)」,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彙編』 1,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36~37면(「외교부 대변인이 “재중 조선 인민은 귀국하여 조국을 보위할 권리가 있다”고 발표한 성명(1950.9.20)」,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한국전쟁 관련 중국자료선집: 한국전쟁과 중국』 2, 2002, 36면).

64) “연변 조선청장년 1400여 조국전쟁으로 지원 출발”, 『동북조선인민보』, 1950.11.15.

65) 문미라, 앞의 논문, 276면.

조' 운동과 열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전쟁' 기간인 1951년 9월부터 약 40일간, 중국의 건국 2주년 기념대회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던 북한작가 이태준은 귀국 후 기행문『위대한 새중국』을 발표하였는데 이태준은 이 기행문에서 '조선전쟁'의 성격을 "미제라는 공동의 원수와 중국혁명의 귀결로서의 항미원조"⁶⁶⁾라고 보았으며 연변 조선족이 아닌 중국 전역 전체 중국인민들의 '항미원조' 운동의 열기를 기록하였다. 그는 조국 '조선'의 주체성이란 입장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철저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항미원조" 중의 중국의 지원을 '조선'에 대한 이웃 나라 즉 우방의 지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⁶⁷⁾

즉 북한의 대표 작가 이태준과 중국의 국민이자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 작가 류원무는 선후로 30여 년이란 시간적 차이를 두고서도 모두 '조선전쟁'을 미중 간의 직접적인 대결로, 미국의 중국 침략에 대한 중국인민의 반격으로 보았으며 중국의 '항미원조' 운동을 '조선'에 대한 이웃 나라 즉 우방 중국의 지원으로 보았다. 이태준의 기행문과 류원무의 소설 모두 '항미원조' 전쟁에서 '한반도 조국관'에 기초한 연변 조선족의 '조국 조선의 해방'이라는 특수한 정서적 차원의 문제를 비껴간 것이다. 이처럼 미국 대 중국의 대결, '조선'에 대한 우방으로서의 중국의 지원이라는 '항미원조' 전쟁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체적인 서사적 맥락에서는 사뭇 다른 결을 보이고 있는데 이태준이 북한의 국민의 입장에서 조국 '조선'의 주체성이란 시각에서 서사를 이끌어갔다면 중국 조선족 작가 류원무는 '조선전쟁'의 연속이자 후방전쟁이기도 한 연변지역의 반간첩 투쟁 중에서 조선족의 공헌과 기여를 중국의 국민적 차원으로, 조국 중국을 지키기 위한 충성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류원무는 이 반간첩 투쟁에서 조선족 첩보일군 리용길의 눈부신 활약과 자아희생 정신 그리고 정찰패의 한족과 조선족 전사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각별히 부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족의 반간첩 투쟁 및 '조선전쟁'에서의 기여와 공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전쟁'이 단순히 북한을 침략한 미제에 대항하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항미원조'가 아니라 결국은 미중 간의 대결로 그 성격이 규정될 때, 조선족의 이러한 반간첩 투쟁 및 '조선전쟁'에서의 기여와 공헌 및 활약은 결국 조선족의 조국으로

66) 이해영, 「이태준과 『위대한 새중국』」, 『현대문학의 연구』 5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211면.

67) 이해영, 앞의 논문, 231면.

된 중국을 보위하고 중국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조국 중국에 대한 충성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즉 조선족 작가 류원무는 조선족의 이러한 반간첩 투쟁 및 ‘조선전쟁’에서의 기여와 공훈 그리고 활약을 뚜렷하게 부각함으로써 조국으로 된 중국을 보위하고 조국 중국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조선족의 애국심과 국가적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족은 드디어 건국이후로부터 문혁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정치운동과 동란 속에서 줄곧 따라다니던 ‘조선특무’, ‘한국특무’의 혐의로 인한 역사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당당한 중국의 국민으로 그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류원무의 『숲속의 우등불』은 조선족 문학사에서 극히 희소한 반간첩 소설로서 조선족에게 오랫동안 정치적, 역사적 굴레가 되었으나 줄곧 스스로 이의 부당함을 말하지 못했던 ‘조선특무’, ‘남조선특무’ 관련 문제를 정면으로 서사화하였다.

소설은 우선 반간첩 투쟁의 성격을 ‘항미원조’전쟁의 후방 전쟁으로 규정하였다. 소설은 반간첩 투쟁 일선에서 싸우는 해방군과 공안일군들, 그리고 그들의 반대편에서 파괴와 교란을 일삼는 악의 축 잠복특무와 파견특무들 양대 진영의 치열한 각축전과 대립이 실은 ‘항미원조’ 전쟁을 중심에 두고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항미원조’ 전쟁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설은 또한 항전승리 이전의 역사에로 소급해올라감으로써 반간첩 투쟁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소설은 반간첩 투쟁 양 진영 인물들의 출신과 성분, 과거의 행적을 통해 이들의 현재가 실은 해방이전, 즉 항전승리 이전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항미원조’ 전쟁과 반간첩 투쟁 모두 해방 이전 구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이었던 계급대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과거의 계급적 분화와 대립이 해방의 시점에서 이들에게 ‘잔류’냐 ‘도주’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새중국의 인민정권의 구성원 즉 새중국의 국민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새중국의 국민적 자격이 어떻게 획득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공식에 의해 일제에 협력했거나 부역했던 조선인들은 새중국의 인민정권을 반대하고 파괴하

고 전복을 기도함으로써 새중국의 국민에서 축출되었고 반대로 일제에 원한을 품었던 조선인들은 일제가 패망하자 혁명에 참가하여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서 새중국의 인민정권을 보위하고 새중국의 건설을 위해 성심껏 일함으로써 새중국의 국민적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소설은 새중국의 국민적 자격은 민족을 초월하여 계급적 분화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소설은 ‘조선전쟁’의 성격을 미제의 침중 전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을 확인하였다. 소설은 미국이 중국의 동북변경에 무장투무를 투하하고 첩보활동을 벌이는 것이 단순히 ‘조선전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적으로는 중국 침략이 그 목표이며 중국을 그 직접적인 공격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전쟁’기간 중국을 방문했던 북한작가 이태준 역시 1951년 말에 집필한 기행문『위대한 새중국』에서 ‘조선전쟁’의 성격을 “미제라는 공동의 원수와 중국혁명의 귀결로서의 항미원조”라고 보았는데 이태준의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철저한 ‘조선’의 민족주의자로서의 입장과 조국 ‘조선’의 주체성이란 입장이 놓여있었다.

하지만 중국 조선족의 작가 류원무가 1980년대라는 시점에 ‘조선전쟁’기간인 1952년 중국의 동북변경인 장백산 밀림에서 벌어진 반간첩 투쟁을 서사화하면서 반간첩 투쟁을 ‘조선전쟁’의 연장이자 후방에서 벌어진 동시성을 띤 전쟁으로 보고 ‘조선전쟁’의 성격을 ‘항미원조’와 동시에 미중 간의 직접적인 대결로 규정지은 것은 이태준의 이러한 민족주의와 ‘조선’의 주체성이라는 입장과는 사뭇 다른 맥락에 놓여 있다. 조선족 작가 류원무는 조선족의 이러한 반간첩 투쟁 및 ‘조선전쟁’에서의 기여와 공훈 그리고 활약을 뚜렷하게 부각함으로써 조국으로 된 중국을 보위하고 조국 중국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조선족의 애국심과 국가적 정체성을 보여주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족은 드디어 건국이후로부터 문혁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정치운동과 동란 속에서 줄곧 따라다니던 ‘조선특무’, ‘한국특무’의 혐의로 인한 역사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당당한 중국의 국민으로 그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동북조선인민보』

곡애국·증범상, 『조남기전』, 연변인민출판사, 2004

류원무, 『숲속의 우등불』, 연변인민출판사, 1980.

리혜선, 『빨간 그림자』, 연변인민출판사, 1998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역사비평사, 2010

오태호 외, 『풍랑』, 민족출판사, 1993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1

정판룡, 『고향 떠나 50년』, 민족출판사, 2006

『주덕해의 일생』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연변인민출판사, 1987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6: 창업』, 민족출판사, 1994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한국전쟁 관련 중국자료선집: 한국전쟁과 중국』 2, 2002

姚旭, 『從鴨綠江到板門店: 偉大的抗美援朝戰爭』, 北京: 人民出版社, 1985

政協延邊朝鮮族自治州文史與學習宣傳委員會編, 『歷史的回眸』,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3

김동길·박다정,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및 한국전쟁 초기, 중국의 한국전쟁과 참전에 대한 태도 변화와 배경」, 『역사학보』 225, 역사학회, 2015

문미라, 「한국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연변(延邊)조선인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중 ‘혈맹’ 관계의 강화」, 『동북아역사논총』 57, 동북아역사재단, 2017

박정수, 「《동북조선인민보》를 통해서 본 연변조선족과 6.25전쟁」, 『한국사학보』 37, 고려사학회, 2009

박종철, 「문화대혁명 초기 북중관계와 연변 조선족」, 『민족연구』 63, 한국민족연구원, 2015

박미령, 「류원무 농촌소설 연구」, 중국: 중국해양대 석사학위논문, 2021

염인호, 「6.25전쟁과 연변조선족 사회의 관련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28,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_____, 「해방 직후 연변 조선인 사회의 변동과 6.25전쟁: 군중대회·운동분석을 통하여」, 『한국근현대사연구』 2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이승엽, 「북한화교의 형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2

이해영, 「이태준과 『위대한 새중국』」, 『현대문학의 연구』 5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최일, 「‘민족’에서 ‘국민’으로-‘조선족’과 ‘조선전쟁」, 백원담·임우경 편,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문학과학사, 2013

1980년대 중국 조선족의 반간첩 혁명서사와 국가적 정체성

표도르 짜르치즈스키, 「북한화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14
安龍禎·張振廷 『长白山肃特』(延边文史资料第二十辑), 延边州内部资料性出版物第 2016040002
號, 2016

Narration of Chinese Korean Anti-espionage Revolution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1980s

Li, Hai-ying · Ren, Qiu-le

Focusing on Ryu Won-mu's *Fire in the Woods*, an extremely rare anti-espionage novel in the history of Chinese Korean literature, this paper discusses what Ryu Won-mu wants to say through the anti-espionage revolution narration and the reasons why the anti-espionage revolution narration is needed by Chinese Koreans by observing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and the emphasis on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Chinese Koreans.

The novel first defines the nature of the anti-espionage struggle as the rear war of the war of “resisting US aggression and aiding Korea”, which shows the extension of the war. The novel also traces back to the history before the victory of the Anti Japanese War to reflect the historicity of the anti-espionage struggle and to show that both the war of “resisting US aggression and aiding Korea” and the anti-espionage struggle are rooted in the class opposition that is the main contradiction of China's old society before Liberation. Especially this novel stands on the perspective of Liberation to show that class differentiation and opposition in the past have become the decisive standard for the Chinese Koreans to decide to “stay” or “escape”. Thus, it especially shows how the members of the people's regime of new China, that is, the citizens of new China formed and how they obtained the national qualification of new China. According to this formula, the Koreans who had cooperated or served with Japanese imperialism and opposed, attempted to destroy and overthrow the people's regime of new China were expelled from New China. On the contrary the Koreans who hated Japanese imperialism took part in the revolution after the demise of Japanese imperialism, defended the people's regime of new China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worked hard for the construction of new China so as to obtain the national qualification of new China. The novel shows that the national qualification of new China is determined by transcending the nation and based on class differentiation. The novel defines the nature

of the Korean War as the aggressive war of American imperialism, so as to confirm the national qualification of the Korean nationality. Lee Taejun, a Korean writer who also defined the Korean War as a war of aggression by US imperialism, published the travel essay, *Great New China* at the end of 1951 from the stand point of thorough Korean nationalism and the subjectivity of the motherland Korea. Compared with it, by highlighting Chinese Koreans' anti-espionage struggle and their contributions, meritorious deeds and active performance in the Korean War, Chinese Korean writer Ryu Won-mu shows the patriotism and national identity of Chinese Korean people who defend and are absolutely loyal to the motherland China. In this way, the Korean people can finally get rid of the historical fetters that they have been suspected of being "North Korean spy" and "South Korean spy" in political movements and turmoil during the period from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cultural revolution, and establish their national identity as dignified Chinese citizens.

Key Words : Ryu Won-mu, *Fire in the Woods*, anti-espionage Revolution narration, 'resisting US aggression and aiding Korea', 'Korean War', Chinese Korean Literature

